

정례브리핑

2020.3.9(월) 10:0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동정입니다.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아니, 미사일 발사체를. 여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올 텐데 통일부가 분석한 어떤 북한의 의도라든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 이런 사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의 의도, 이런 분석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발사체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통일부 입장은 따로 없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이 있습니다.

<질문> 정부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다시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 예, 그것은 관계기관에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미우리신문에서 오늘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마스크 요청에 거절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무근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북한에 보건협력이나 협의 관련해서 제안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측의 지원요청이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질문>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보낸 이후 닷새 만에 발사체를 또 발사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이나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있나요?

<답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